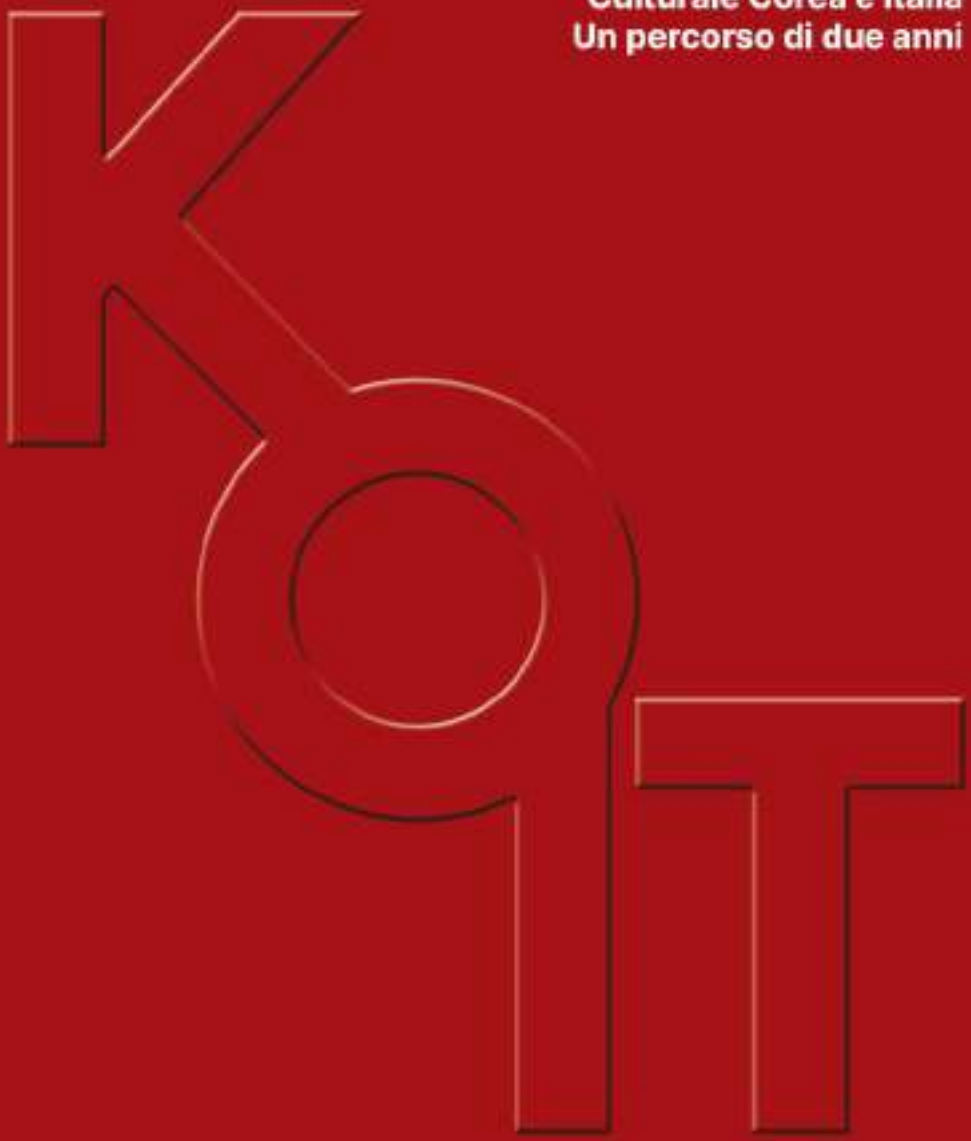
2024 —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2년의 기록

KOREA-ITALY Year of Cultural Exchanges A Two-Year Journey

Anno dello Scambio Culturale Corea e Italia Un percorso di due anni



KOFICE

2024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ANNO DELLO SCAMBIO
CULTURALE ITALIA E COREA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한국과 세계 각국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를 비전으로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더욱 확산시켜
‘공감’과 ‘상생’의 국제문화교류를 실현하는
문화 허브가 되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의미

· 상호 문화교류의 해
/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8
· 공식로고 및 홍보채널 9

2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12

3 2024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 쌍방향 교류
-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MOU 체결 및 개막행사 20
-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특별전시 24

· 미래세대 문화교류
- 아레나 디 베로나재단 협력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28
- 박은선 작가 특별전 연계 마스터클래스 32

· 장르 다양화
- 오페라 예술인 교류회 34

4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 쌍방향 교류
-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40
-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46
- Roma Arte in Nuvola 아트페어 주빈국 특별전 50

· 미래세대 문화교류
-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 54
- 청년 예술인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66

· 장르 다양화
- 한식과 발효 마스터클래스 69
- 청년 패션 교류사업 72

· 지속교류 기반구축
- 2024-2025 민간공식인증사업 75

1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의미

상호 문화교류의 해

한국과 특별한 외교적 계기가 있는 수교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양국 간 상호 문화 이해와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한국과 이탈리아는 1884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은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후 2024년 5월 3일 '문화'를 매개로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2년간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상호이해와 신뢰를 심화하고 미래세대 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공식 로고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공식 로고는 조선시대 양반이 착용하던 전통 모자 '갓'과 이탈리아 문학의 거장 단테의 옆모습을 결합하여 구성되었다.

갓이 한국 전통 사회의 품격과 정신세계를 상징한다면, 단테는 이탈리아 언어와 문학 전통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두 상징은 하나의 인물 실루엣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양국 문화의 역사성과 깊이를 시각적으로 연결한다.

서로 다른 역사와 미학이 교차하는 이 형상은 상호 교류와 공존의 가치를 담아내며, 양국 교류의 새로운 문화적 서사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다. 본 로고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쎄라(Andrea Vecera)가 디자인하였다.

한국



이탈리아



홍보채널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_it_culturalyear

2



사업 성과

사업 성과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는 2년에 걸쳐 양국에서 총 13개의 다양한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며,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시각예술, 오페라, 디자인, 한식,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쌍방향 협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참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구조를 조성하고자 했다.

2024년에는 국립국악원의 전통 공연을 개막행사로 개최하고, 로마 콜로세움 일대 조각 전시,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및 예술인 교류회를 이탈리아 현지에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기관 간 직접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차년도 사업 확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25년에는 이탈리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디자인과 오페라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청년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기획 및 양국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청년 오페라 예술인 교류 및 공동 공연을 통해 한국에서 오페라 「라 보엠」을 선보였다. 전문 분야 중심의 공동 협력을 통해 교류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였다.

2년간 진행한 사업을 통해 총 82,069명의 관객을 만났고, 20개 협력기관과 협업했으며, 662건의 언론보도로 사업 성과와 주요 프로그램이 국내외에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 문화예술계 간 교류 기반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기관과 현장 중심의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은 문화행사를 넘어 협력 체계와 공동 제작 모델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문화외교의 실질적 성과로 축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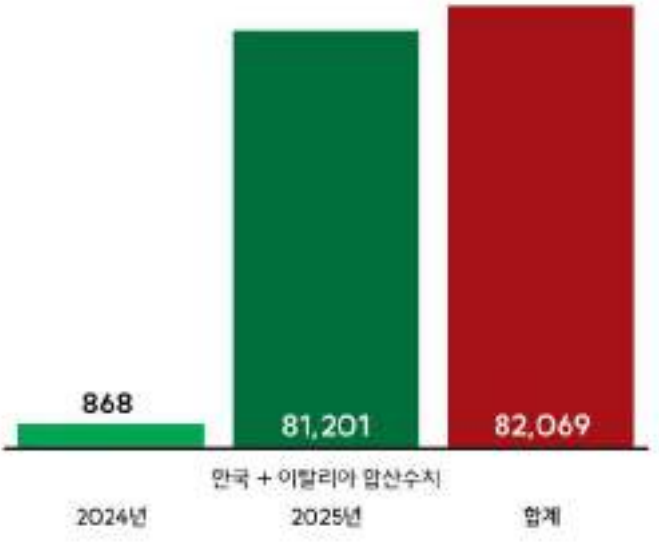
장르수



협력기관수



관객수


868
81,201
82,069
한국 + 이탈리아 합산수치
2024년
2025년
합계

언론보도수


105
201
306
96
260
356
한국
이탈리아
합계
한국
이탈리아
합계
2024년
2025년

SNS 성과


2024년
2025년
10
12
18,982
207,983
54
45
2,895
1,679
21,941
209,719
영상콘텐츠 게시수
영상콘텐츠 조회수
카드뉴스 게시수
카드뉴스 좋아요수
합계


사업만족도
2024
표본수 : 416
개막행사 87.3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97.8
2025
표본수 : 1,210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94.5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 91.4
Roma Arte in Nuvola 아트페어 94.3
청년 디자이너 멘업 프로그램 92.7
청년 예술인 오페라 교류 및 공동공연 95.7
청년패션교류사업 98.3
문화교류 기여도
2025
표본수 : 1,210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88.3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 85.7
Roma Arte in Nuvola 아트페어 87.4
청년 디자이너 멘업 프로그램 86.7
청년 예술인 오페라 교류 및 공동공연 91.4
청년패션교류사업 87.9
한국문화 이미지향상
2025
표본수 : 1,210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89.9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 84.3
Roma Arte in Nuvola 아트페어 89.1
청년 디자이너 멘업 프로그램 90.5
청년 예술인 오페라 교류 및 공동공연 92.9
청년패션교류사업 96.6



2024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3

2024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MOU 체결 및 개막행사

2024년 5월 3일, 이탈리아 로마 외교협력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체결식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합의된「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는 문화예술·문화산업을 매개로 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다.

5월 4일 오전에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양국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유하였다.

같은 날 오후 로마 아르젠티나 국립극장에서 개막 행사 리셉션과 기념 공연이 이어졌다. 리셉션에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 이성호, 이탈리아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담당 참사관 등 문화·외교 분야 주요 인사 약 70명이 참석하여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진행하였다.

기념 공연으로는 국립국악원이 연출·제작한 「세자의 꿈」이 무대에 올랐다. 본 작품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기획된 해외 초연작으로, 국립국악원이 로마에서 처음 선보인 공연이다. 관례를 마친 세자가 백성의 삶 속에서 성장해 가는 서사를 바탕으로 태평무, 사랑춤, 소고춤, 판굿 등 전통 음악과 무용을 구성하여 한국 전통예술의 리듬과 미감을 집약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개막행사는 정부 간 합의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선보임으로써 '상호 문화교류의 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향후 2년간 추진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업무협약(MOU) 체결식



·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개막행사 리셉션



· 개막 공연 「세자의 꿈」



· 개막 공연 「세자의 꿈」



· 개막 공연 객석 전경



· 개막 공연 기념사진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특별전시

2024년 6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로마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일대에서 한국 현대조각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티투스 개선문과 셉티조디움 터, 진실의 입 광장 등 고대 로마의 상징적 공간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각가 박은선의 「무한기둥(Colonna infinita)」 연작 5점이 설치되었다. 박은선 작가는 30여 년간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동서양의 미학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국제적 평가를 받아왔으며, 2018년에는 이탈리아 조각의 중심지로 알려진 피에트라산타 시에서 매년 최고의 조각가에게 수여되는 '프라텔리 로셀리(Fratelli Rosselli)'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 공간 위에 한국 현대조각이 더해지며,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형 언어가 한 장면에서 교차했다. 「무한기둥」은 서로 다른 석재를 결합한 구조를 통해 차이를 기반으로 한 공존과 확장의 의미를 형상화하며, 양국 관계의 지속성과 미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시는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관람 동선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작품이 노출되도록 기획되었다. 5개 언어로 제공되는 다국어 QR 해설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였으며, 운영 기간 동안 37개국에서 접속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시 메시지가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개막행사는 전시 첫날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내 비너스 신전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은선 작가를 비롯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 이성호,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관장 알폰시나 루소(Alfonsina Russo), 이탈리아 문화부 비서실장 프란체스코 질리올리(Francesco Giglioli) 등 양국 문화예술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하였다.

본 전시는 로마의 역사적 유산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동시대 한국의 현대미술을 자연스럽게 노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2024년 11월 박은선 작가 마스터클래스를 연계 추진하여 전시 성과를 미래세대 문화교류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 박은선「무한기둥(Colonna infinita)」| 진실의 입 광장



· 박은선「무한기둥(Colonna infinita)」|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타이투스 개선문 앞



· 박은선「무한기둥(Colonna infinita)」|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셉티조디움 터



· 전시 개막행사 중 박은선 작가 인사말



아레나 디 베로나재단 협력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강동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한국 청년 성악가들을 위한 오페라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다. 본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오페라 기관인 아레나 디 베로나재단(Fondazione Arena di Verona)의 투란도트 오리지널 방한 공연을 계기로, 양국 오페라 분야의 인적·문화적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예술가와 국내 청년 성악가들이 직접 교류하고 이탈리아 오페라 시장과의 접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스터클래스는 아레나 디 베로나 극장장이자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세계적 소프라노 체칠리아 가스디아(Cecilia Gasdia)가 마스터로 참여해 직접 지도를 맡았다.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내 청년 성악가 10명이 2일간 1:1 레슨을 통해 기량과 배역 해석에 대한 심화 지도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최고 수준의 마스터를 직접 만날 수 있어 뜻깊었다”, “단순한 발성 지도를 넘어 연출가의 시선에서 연기와 배역 해석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이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마스터클래스와 달리 공개 강좌를 병행 운영하여 세계적 예술가의 전문적 노하우를 폭넓게 공유하였다. 성악 및 클래식 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계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적 파급 효과를 확대하였다.

본 사업은 한·이탈리아 오페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차년도 청년 오페라 공동 공연으로 연결되는 실행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내 미래세대가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교육과 현장 중심의 예술적 노하우를 직접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현장 및 지도 모습





·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수료증 교부



·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기념사진



· 오페라 마스터클래스 포스터



박은선 작가 특별전 연계 마스터클래스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한 특별전시와 연계해, 박은선 작가의 마스터클래스가 2024년 11월 18일 국립로마미술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사업은 이탈리아 현지 예비 조각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현대 조각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 철학을 직접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마스터클래스에는 국립로마미술대학교 조각과 학생 48명이 참여했으며, 박은선 작가는 자신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조각가로서 작업을 지속해 온 과정과 창작의 여정을 풀어냈다. 작품 제작에 요구되는 인내와 예술적 성장을 향한 태도 등 작가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진솔하게 전하며, 예술가의 삶과 창작이 맞닿아 있는 지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본 사업은 이탈리아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현대 조각예술의 미학과 창작 맥락을 교육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조각가의 작업 세계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예술 교육 현장을 매개로 한국 조형예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와 예술인 간 교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박은선 작가의 마스터클래스 진행 모습



· 마스터클래스 참여 학생과의 대화



· 마스터클래스 객석 전경



· 마스터클래스 기념사진



오페라 예술인 교류회

2024년 11월 29일 이탈리아 밀라노 더 웨스틴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오페라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공연 시장의 단기적 진출 및 시장 확대를 넘어, 오페라 산업과 전문 예술인 간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2024 한국-이탈리아 오페라 예술인 교류회」다.

교류회는 양국 대표 오페라 극장 간 협력, 청년 오페라 인재의 교육·양성, 오페라 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진출 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과 서울대학교 오페라센터 센터장 서혜연이 참여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국립제노바극장 극장장 클라우디오 오라치(Claudio Orazi), 아레나 디 베로나 수석 예술감독 프란체스코 옴마시니(Francesco Ommassini), 볼로냐 시립극장 책임비서 마리아 리타 로마뇰리(Maria Rita Romagnoli),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마에스트로 파올로 파니차(Paolo Panizza),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장 데메트리오 콜라치(Demetrio Colaci) 등 주요 기관 관계자 10인이 함께하였다.

특히 2025년 한-이 오페라 교류 사업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청년 예술가 교류를 기반으로 한 공동 제작 모델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와의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5년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협업한 오페라 공동공연이 성사되었다.

· 오페라 예술인 교류회 현장



· 한국 측 참여 인사



· 이탈리아 측 참여 인사



· 오페라 예술인 교류회 발표 모습



· 오페라 예술인 교류회 기념사진



· 오페라 예술인 교류회 보도자료 배포용 포스터

2024-2025 Korea-Italy the year of Cultural Exchanges

Korea-Italy OperaVision Forum

As part of the 2024-2025 Korea-Italy Year of Cultural Exchang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Republic of Korea and KOFICE have organized a special opera forum to discuss collaborative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exchanges between theaters, professionals, and the next generation in both Korea and Italy. We would be honored by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 **Date** November 29, 2024, 15:30-18:30
- **Venue** The Westin Palace Hotel, Verdi Room (GF)
- **Participants**
  - KOFICE(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 Seoul National University, Daegu Opera House
  - Italian National opera theaters, Academy, Universities, Agencies
- **Programs**

Time	Content	Presenter
15:00-15:30	Reception	
15:30-16:00	Opening & Introduction - Proposal for Korea-Italy Opera Exchange and Collaboration Programs	KOFICE
16:00-16:20	- Proposal for an Opera performance in collaboration with young tal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6:20-16:40	- Proposal for Korea-Italy Opera Theater Exchange Programs	Daegu Opera House
16:40-17:00	Coffee Break	
17:00-18:00	Discussion on Opera Collaboration for 2025 Open Discussion	All Participants*
18:10-18:30	Closing	KOFICE

2024 2025 | 한국-이탈리아 문화교류의 해 KOREA-ITALY CULTURAL EXCHAN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FIC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4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2025년 6월 26일 오후 9시(현지 시각), 세계문화유산 콜로세움에서 「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1주년을 기념하는 미디어파사드 상영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양국 수교일에 맞춰 추진된 협업 사업으로, 이탈리아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에서 양국 작가의 영상 작품을 상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시간의 울림(Echo of Time)'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상영은 과거의 예술, 현재의 감각, 미래의 상상력을 연결하는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양국의 역사적 미감과 문화적 철학을 현대 AI 기술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재해석하며, 서로의 문명이 공명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상영에는 한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이탈리아의 Squatters Lab(대표 안드레아 부치(Andrea Bucci)), 빈센조 마르실리아(Vincenzo Marsiglia) 그리고 한-이 청년 협업팀 '코리아라운드팀'이 참여하여 총 4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대표·중견·청년 작가가 함께 참여한 구조는 양국 예술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기획으로 설계되었으며, 모든 작품은 콜로세움고고학공원의 예술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 작품은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구현되었다.

상영회 행사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이탈리아 문화부, 콜로세움 관계자, 현지 문화예술계 인플루언서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이 상영을 감상하고 촬영과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ANSA, ARTE.it 등 현지 언론과 SBS, KBS 등 국내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양국 문화 협력의 상징적 장면으로 대외적으로 확산되었다.

콜로세움은 하루 약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지이자 이탈리아 국가 사업 홍보에 활용되는 상징적 매체로, 이번 미디어파사드는 이러한 공간성과 양국의 예술·기술 역량을 결합해 세계유산 공간에서 구현된 한-이 공동 협업 사업으로서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고 한국 디지털·미디어 예술의 유럽 내 가시성을 제고한 대표 사례가 되었다.

진흥원 유튜브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스케치 영상**

·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현장



· 이이남 작가 언론 인터뷰 모습



· 오프닝 행사 및 기자 간담회 현장 | 이이남 작가



· 오프닝 행사 및 기자 간담회 현장 |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 오프닝 행사 및 기자 간담회 현장 | Squatters lab 대표 안드레아 부치 작가



·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기념사진



‘시간의 울림(Eco of Time)’
미디어파사드 상영회 현장 반응

행사 운영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관객 동선 관리부터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L’organizzazione è stata eccellente,
sia nella gestione del flusso del pubblico
sia nell’allestimento,
che ha permesso di ammirare
le opere d’arte da vicino,
in modo intimo e coinvolgente.
Complimenti!

유서 깊은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상적인 행사였습니다.
앞으로의 협력 역시 높은 완성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È stato un evento di grande impatto,
in cui due culture dalle radici profonde
si sono armoniosamente intrecciate.
Mi auguro che le future collaborazioni
tra i due Paesi si sviluppino
con un elevato livello di qualità.

한 - 이 협력을 알리는 데 있어
매우 인상적인 시도였습니다.
뛰어난 기획과 높은 완성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È stato un tentativo estremamente significativo
per promuovere la cooperazione tra Corea e Italia.
Sono rimasto profondamente colpito dall'eccellente
organizzazione e dall'alto livello qualitativo dell'evento.
Desidero esprimere le mie più sincere
congratulazioni e il mio ringraziamento.

예술이 서로 다른 두 문화를 하나로 잇고,
강렬하고 오래 기억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인상적인 행사였습니다.

Un evento di grande impatto, in cui ancora una volta l'arte
ha dimostrato di saper unire culture diverse
e generare sinergie forti e durature.

따뜻한 환대와 완성도 높은 공간 구성, 음식과 공연,
연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L'accoglienza, la qualità dello spazio e l'insieme di cibo,
spettacoli e discorsi hanno reso l'esperienza
complessivamente molto positiva e memorabile.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정영선과 협업자들」은 한국 현대 조경을 대표하는 조경가 정영선의 50여 년에 걸친 작업 세계를 조망한 전시로, 베니스 산마르코 아트센터(San Marco Art Centre, SMAC)의 개관 특별전으로 공식 초청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작된 기획전이 베니스로 확장된 사례로, 한국 조경을 국제 전시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전시다.

전시는 2025년 5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 5월 5일부터 8일까지 VIP 사전 공개와 5월 7일 공식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용호성,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 김준구, 베니스 부시장 시모네 벤투리니(Simone Venturini) 등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제 미술·건축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시의 국제적 위상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기간과 맞물려 운영되면서 전 세계 건축·조경·미술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조경이 동시대 국제 건축·조경 담론 속에서 논의되는 장으로 확장되었다.

대표 작품 25점을 포함해 모형, 드로잉, 사진, 영상 등 총 330점의 아카이브 자료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정영선 조경가의 작업 변천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동시에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조민석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건축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경이 건축·도시·환경과 교차하며 확장되어 온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시 기간 동안 총 10,230명이 방문하여 한국 조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국내 기획전이 해외 기관의 개관 특별전으로 확장된 사례이자, 한국 조경·환경예술이 국제 전시 네트워크 안에서 논의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후속 전시 및 문화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전시 전경





· 전시 개막식



· 전시 개막식 중 정영선 조경가 인사말



· 정영선 조경가와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가 대화 모습



· 전시 관람 모습



Roma Arte in Nuvola
아트페어 주빈국 특별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은 국내 시각예술 전문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와 협력해 2025년 Roma Arte in Nuvola 아트페어 주빈국 특별전「Fever State」를 기획하였다. 'Roma Arte in Nuvola'는 2021년 출범 이후 로마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제 아트페어로, 2025년 제5회 개최를 맞아 대한민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였다. 이는 한국 동시대 미술의 국제적 위상이 공식적으로 조명된 사례로, 이탈리아 현대미술 시장과의 접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10월 16일 로마 하드리아누스 신전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2025년 아트페어 주빈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음이 발표되었다.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공사 김건화는 현장에서 한국관「Fever State」의 기획 의도와 참여 작가를 직접 소개하며, 한국 동시대 미술의 역동성과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설명했다. 행사에는 로마시청 문화국장과 국립문명박물관장 등 주요 인사와 약 50명의 현지 언론인이 참석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월 20일 개막식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 김준구를 비롯해 로마 아트페어 회장 알레산드로 니꼬시아(Alessandro Nicosia) 등 주요 인사 약 15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현지 주요 일간지 La Repubblica, TGR 등을 통해 한국관「Fever State」가 주요 기사로 보도되었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본 전시는 아워레이보의 이정형 디렉터와 추성아 큐레이터가 기획을 맡았으며, 청년 작가 6인(김민훈, 김유자, 오가영, 이양희, 장종완, 최윤)이 참여해 조각, 회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 16점을 선보였다. 한국 동시대 미술이 지닌 긴장과 에너지를 응축해 보여주며, 전통과 현대, 물성과 디지털이 교차하는 세대적 감각과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베니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 컬렉터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었으며, 국가관 형식을 넘어 시장 기반 국제 아트페어 현장에서 한국 동시대 미술을 직접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로마 아트페어 회장 알레산드로 니꼬시아(Alessandro Nicosia)는 대한민국을 동시대 미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하였다. 이번 주빈국 참여는 단발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현지 미술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미술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아트페어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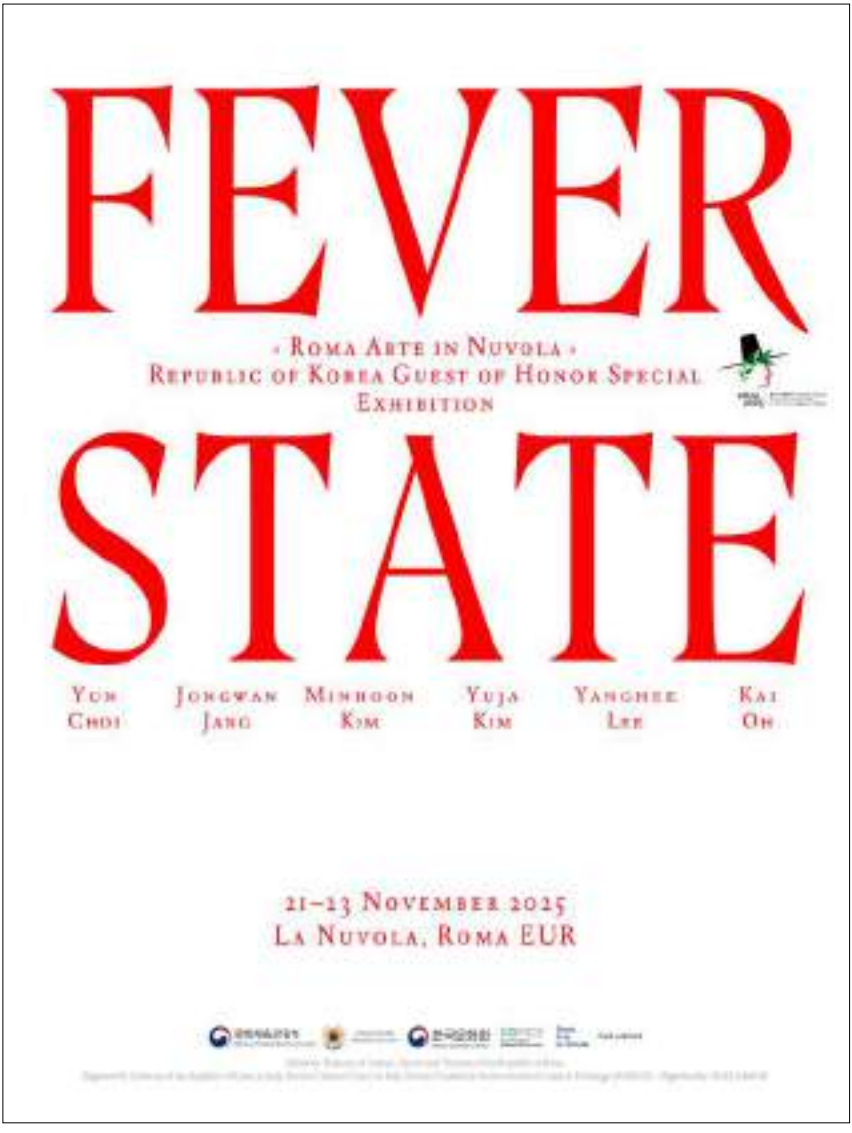
· 아트페어 개막식 현장







· ‘Roma Arte in Nuvola’ 아트페어 주빈국 특별전 포스터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

「디자이너스 테이블(Designer's Table)」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유하는 식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출발점으로 기획된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이다. 두 나라는 일상의 식탁과 음식에 대한 철학이 뚜렷한 문화권이며, 식문화는 테이블웨어를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본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해, 양국 청년 디자이너들이 식문화를 직접 탐구하고 그 과정을 디자인 리서치와 협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설계되었다.

공개 공모를 통해 테이블웨어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 전 분야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각 6명씩, 총 12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디자이너들은 온라인 교류와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통해 음식과 식기, 식탁을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이 과정에는 '황금 콤파스상(Compasso d'Oro)' 수상자인 이코 밀리오레(Ico Migliore)와 마리오 트리마키(Mario Trimarchi), 여미영(Studio D3 대표), 박성제(Flos 한국지사장) 등 4인의 양국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작업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함께 다듬었다.

그 결과 완성된 12개의 작품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양국 식문화를 해석한 결과물로 구현되었다. 이후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감각과 차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섯 개의 코드(Time, Projection, Exchange, Play, Superimposition, Architecture)가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과 이탈리아 식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전시 「디자이너스 테이블: 여섯 개의 코드, 두개의 관점(Designer's Table: Six Codes, Two Perspectives)」의 중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전시는 서울 서촌라운지(11.12.~12.31.)와 서울디자인페스티벌(11.12.~11.16.)에서 먼저 공개되었으며, 이어 밀라노 10 Corso Como(11.20.~11.30.)에서도 전시되었다. 서울과 밀라노 두 도시를 무대로, 양국 청년 디자이너들의 공동 리서치와 협업의 성과를 국제 관객과 공유한 사례로 남았다.

프로그램 도록 (국문)

프로그램 도록 (이탈리아어)

· 연간 프로그램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참가자 선발	1월 3일~2월 5일 3월 17일~4월 21일	한국 디자이너 공모·선정 이탈리아 디자이너 공모·선정
발대식	5월 9일	오리엔테이션
1차 멘토링	5월 5일~5월 19일	첫 기획안 1차 멘토링
1차 워크숍	6월 29일	2차 기획안 발표 및 토론
2차 멘토링	7월 4일~7월 13일	2차 기획안 멘토링
2차 워크숍	8월 8일	최종 작품 기획안 발표 및 토론
작품 제작	8월~10월 11월~12월	기획안 작품 제작 양국 전시 개최 및 교류 성과 발표
결과물 전시	11월 12일~12월 31일 11월 12일~11월 16일 11월 20일~11월 30일	한국 전시 – 서촌라운지 한국 전시 – 서울디자인페스티벌(코엑스) 이탈리아 전시 – 10 꼬르소 꼬모
성과 공유회	12월 초	한-이 참가자 성과 발표 및 네트워킹

· 한국 디자이너 작품



신중연 - 시를 위한 작은 시간



이은아 - ORA: 조명&홀더 오브제



정지수 - 볼라레



나희연 - 더 바이트 디사이더



김정현 - 수묵



설수빈 – 칼럼 앤드 파고다

· 이탈리아 디자이너 작품



줄리아 베키아토 - 고독한 식사자



마라 브라가뇰로 - 세파레



말리사 마라스코 - 타일즈



줄리아 데 프랑코 - 지로



굴리엘모 브람빌라 - '리플' 볼 세트



잔루카 세스티니 – 불안정한 관계를 위한 장치

· 한국 전시장(서울 서촌라운지)





· 한국 전시 전경





· 한국 전시 오프닝 행사 소감 발표





· 한국 전시 오프닝 행사 기념사진



· 이탈리아 전시장(밀라노 10 Corso Como) 및 전시 전경





· 이탈리아 전시 오프닝 행사



· 이탈리아 전시 오프닝 행사 중 멘토 인사말



· 이탈리아 전시 오프닝 행사 중 디자이너 소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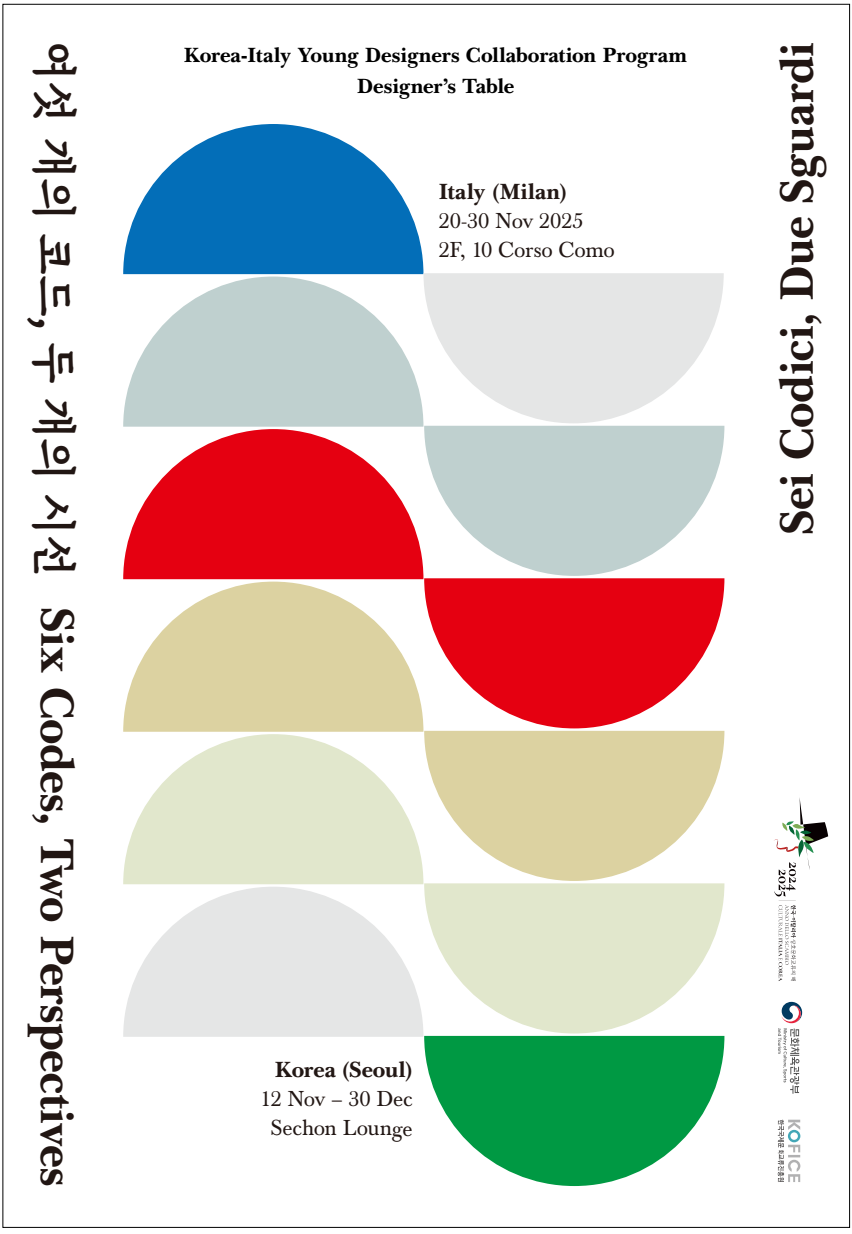


· 이탈리아 전시 오프닝 행사 기념사진



진흥원 유튜브 밀라노 전시 오프닝 행사 영상

· 한국-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 포스터



청년 예술인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청년 예술인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은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협력해 추진한 청년 오페라 예술인 교류 사업이다. 서울대학교 오페라센터 센터장 서혜연 교수를 중심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음악 교육기관이 교육 시스템과 공연 제작 역량을 연계해, 청년 예술인이 기획부터 제작·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 제작 구조로 설계하였다.

공연 작품으로는 자코모 푸치니의「라 보엠」을 선정하였다.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은 청년 예술인 중심의 공동 제작 취지와 맞닿아 있었다. 양국의 전문가와 청년 예술인들은 성악, 연출, 무대, 의상 등 주요 제작 분야에 함께 참여하며 공연 실무 전반을 경험했다.

청년 성악가는 양국에서 각각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한국 18명(트리플 캐스팅)과 이탈리아 4명이 참여했다. 선발 과정에는 양 기관의 예술감독과 교수진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연습 단계에서는 한국 성악가 8명이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밀라노에서 진행된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악 테크닉, 레퍼토리 해석, 스코어 분석, 연기 및 무대 움직임 등 실무 중심의 집중 훈련을 받았다. 이후 한국에서 이어진 제작 과정에서는 한국 청년 연출진이 이탈리아 연출가 마리나 비앙키(Marina Bianchi), 무대·의상 디자이너 레일라 프테이타(Leila Fteita)와 협업하며 제작 경험과 기술 교류를 이어갔다.

그 결과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오페라「라 보엠」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국 청년 예술인이 교육과 제작, 무대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성한 실질적 공동 창작의 결과물이었다. 청년 성악가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와 제작진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무대를 구현했으며, 총 4회 공연 동안 7천 명이 넘는 관객과 호흡했다. 이는 한-이 오페라 협력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청년 중심 국제 공동 제작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진흥원 유튜브 오페라「라 보엠」스케치 영상

· 청년 예술인 오페라 공동공연「라 보엠」







· 기념 사진



· 공연 포스터


LA BOHÈME
G. Puccini
라 보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주년
제 34회 서울대학교 정기 오페라공연
CAFE
2025
11. 14 7:30
11. 15 2:00 7:30
11. 16 5:00

한식과 발효 마스터클래스

한식과 발효 마스터클래스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과 협력해, 한식의 핵심적 특징인 발효를 중심으로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철학을 이탈리아에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행사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요리박물관 가룸(Garum - Biblioteca e Museo della Cucina)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음식·문화 전문 매거진 테리토리아(Teritoria)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고급 호텔 및 레스토랑 요리사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마스터클래스는 테리토리아(Teritoria) 소속 호텔 및 레스토랑 셰프 20명을 대상으로, 한식의 주요 재료와 식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와 요리 시연·시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월 19일 가룸(Garum)에서 열린 한식 입문 마스터클래스에서는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Fabrizio Ferrari)가 전통 양념과 발효장의 역할, 김치와 장류를 중심으로 한식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하고, 비빔밥·된장찌개·불고기·겉절이 시연과 시식을 통해 한식의 기본 구성과 맛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5월 20일에는 정관 스님이 사찰음식의 기본 철학과 발효의 원리, 계절의 순환에 따른 음식의 변화를 주제로 강의하고, 표고버섯조청조림 시연과 장 담그기 과정을 통해 발효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시식으로는 연잎밥, 표고버섯조청조림, 감말랭이가 제공되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두 연사가 협업한 한식 만찬이 열려, 현지 요리 전문 기자와 문화계 인사 등 54명을 초청해 8가지 한식 코스 요리와 발우공양 체험을 선보였다.

5월 21일에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Fabrizio Ferrari)가 강연자로 참여한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요리 예능과 콘텐츠가 한식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고, 사전 및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현지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였다.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발효를 중심으로 한식의 구조와 식문화적 의미를 전문 요리사와 일반 대중에게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테리토리아(Teritoria)와의 협력을 통해 고급 호텔 및 레스토랑 요리사를 대상으로 한식을 심층적으로 알림으로써 향후 이탈리아에서 한식의 재해석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한식과 발효 마스터클래스 현장







· 파브리 세프의 토크 콘서트 현장







청년 패션 교류사업

청년 패션 교류사업은 이탈리아 미래 세대에게 한복의 가치와 미학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한복 브랜드 리우앤비우(RIU&VIU)의 김예지 대표를 초청해, 국립로마미술대학교와 협력하여 현지 패션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워크숍은 2025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립로마미술대학교 재학생 26명이 참여했다. 김예지 대표는 전통 복식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 강의와 한복 제작 과정을 병행하며 프로그램 전반을 이끌었다.

이론 수업에서는 한국 복식의 역사와 구조, 동아시아 복식과의 비교를 통해 한복의 독자성을 살펴보고, 전통 및 현대 원단의 특성과 문양·배색을 실물 샘플을 통해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실습 수업은 전통 장식 기법과 규방공예, 장신구 제작, 한지를 활용한 가봉, 한복 및 소품 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은 패턴 제작을 거쳐 주요 한복 형태를 완성했다. 실습을 위해 참가자 1인당 전통 원단과 제작 키트가 제공되었다.

워크숍 결과, 학생들은 한복의 구조적 원리와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약 20점의 스케치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학생 1인당 최대 2점은 실제 한복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해당 작품은 2026년 초 문화원과 국립로마미술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최종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로마미술대학교 교수 사라 키아루지(Sara Chiarugi)는 한복이 전통 장인 기술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디자인 자원으로서 학생들의 창작에 의미 있는 영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한복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교육과 창작 경험을 통해 한–이탈리아 청년 패션 교류의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한복 워크숍 이론 및 실습 현장







· 한복 워크숍 이론 및 실습 현장







2024-2025 민간공식인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민간 차원의 우수한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인증해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확대하고자 민간 공식 인증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한국과 이탈리아 간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인증을 통해 사업의 공신력과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공연·전시·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교류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사용과 후원 명칭 표기를 허용하였다. 또한 카드뉴스 제작과 국가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SNS 채널 게시 등 홍보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인증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건의 민간 문화교류 사업이 공식 인증을 받아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추진되었으며, 각 사업은 현지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 단체들은 공식 인증을 계기로 해외 협력 기관 및 공연장과의 협의가 보다 원활해졌으며, 정부 명의의 후원 표기와 공식 로고 활용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보였다. 특히 공연 중심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관객 유입과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지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공식 인증 사업은 민간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한편, 창작자와 현지 기관, 관객을 연결하는 교류 구조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탈리아 간 문화예술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2024년 선정단체: 씨어터 노 씨어터, 무트댄스
- 2025년 선정단체: 갤러리 일백헌

· 24년도 민간공식인증사업 | 씨어터 노 씨어터의 어크로스 아시아 프로젝트



· 24년도 민간공식인증사업 | 씨어터 노 씨어터의 관객과의 대화



· 24년도 민간공식인증사업 | 무트댄스의 서울 공연(용산)





· 24년도 민간공식인증사업 | 무트댄스의 이탈리아 공연(로마)



· 25년도 민간공식인증사업 | 갤러리 일백헌의 2025 K-Art & Culture Festival 피에트라산타 참여







2024-2025 협력 기관 및 민간 파트너

한국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in Italy / Istituto Culturale Coreano)

국립국악원
(National Gugak Center)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Opera House)

디자인하우스
(Designhouse)

리우앤비우
(RIU & VIU)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오페라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ra Center)

스튜디오디쓰리
(Studio D3)

아워레이보
(OUR LABOUR)

이이남스튜디오
(Leeleenam Studio)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센터
(Italian Studies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탈리아

10 꼬르소 꼬모
(10 Corso Como)

국립로마미술대학교
(Accademia di Belle Arti di Roma)

국립제노바극장
(Teatro Nazionale di Genova)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Accademia Teatro alla Scala)

로마국립극장재단
(Fondazione Teatro di Roma – Teatro Nazionale)

로마시청
(Roma Capitale)

마그마 프로젝트
(MAGMA Project)

베르디 국립음악원
(Conservatorio di Musica Giuseppe Verdi)

볼로냐 시립극장
(Teatro Comunale di Bologna)

산마르코아트센터
(San Marco Art Centre)

아레나 디 베로나재단
(Fondazione Arena di Verona)

이탈리아 외교부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e d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콜로세움고고학공원
(Parco archeologico del Colosseo)

테리토리아
(Teritoria)

2024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2년의 기록

2025
KOREA-ITALY
Year of Cultural Exchanges
A Two-Year Journey

Anno dello Scambio
Culturale Corea e Italia
Un percorso di due anni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기획
교류기반본부 상호문화팀
박지현 팀장
황아름 대리
강지연 주임

편집·디자인
(주)애프터눈

